



DMZ, 과거 현재 미래를 잇다

DMZ PEACE ZONE

심포지엄

2021년 9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주 황룡원 4층 화랑홀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사)세계평화여성연합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KOREA
UN NGO 포괄적협의기구

04308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19 청파빌딩 4층
Tel. 02-703-9321 www.wfwp.or.kr

주관



(사)세계평화여성연합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KOREA
UN NGO 포괄적협의기구



유엔한국협회
United Nations Association
Republic of Korea

후원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UPF 영남지구
Universal Peace Federation



세계일보영남지사



프로그램

DMZ Peace Zone Symposium

시간	주요내용		
10:30~10:3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0:35~11:00	개회식	환영사	모리나가 에미꼬 회장 (세계평화여성연합 영남)
		인사말	손성환 부회장 (유엔한국협회)
		격려사	문훈숙 세계회장 (세계평화여성연합)
		축사	박영배 회장 (UPF 영남지구)
11:00~11:05	기념촬영		

주제 : DMZ, 과거 현재 미래를 잇다

좌장: 박홍순 부회장 (유엔한국협회)

11:05~12:40	DMZ 평화지대 조성과 NGO의 역할	서경도 교수 (금오공과대학교)
	한일해저터널과 한반도 평화	박성열 박사 (UPF 부산지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원장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종합 토론	
12:40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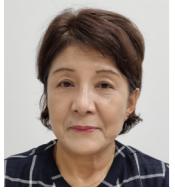


주요 참석자



문훈숙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겸 한국회장

- 現 유니버설발레 단장
- 現 국제공연예술총회(IPSA)서울총회 자문위원
- 現 선학학원 부이사장



모리나가 에미코 세계평화여성연합 영남 회장

- 前 창신대학교 해군사관학교, 문성대학교 교수
- 부산대학교 일어일문전공 박사
- 일본 츠쿠바대학 졸업



손성환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 現 세계자연기금(WWF) 이사장
- 前 외교부 대사



박영배 천주평화연합 영남지구 회장

- 現 신한국가정연합 제5지구장
- 現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출강
-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박사



박홍순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 現 선문대학교 명예교수, 세계유엔체제학회(ACUNS) 집행이사
- 前 외교부 자문위원, 유네스코집행위원
- 前 민주평통 상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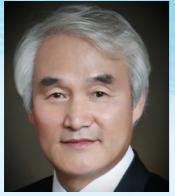
서경도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 現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언론, 방송분과위원
- 現 정부혁신위원회 운영위원(행정안전부)
- 現 한국생산성본부 자문위원



박성열 천주평화연합 부산지부장

- 現 사)한일터널연구회 이사
- 現 세계평화도로재단 자문위원
- 저서: 지성 100인 한일 해저터널을 말하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

- 現 한국DMZ학회 회장
- 現 한·독통일포럼 공공대표
- 現 DMZ유엔평화대학교 추진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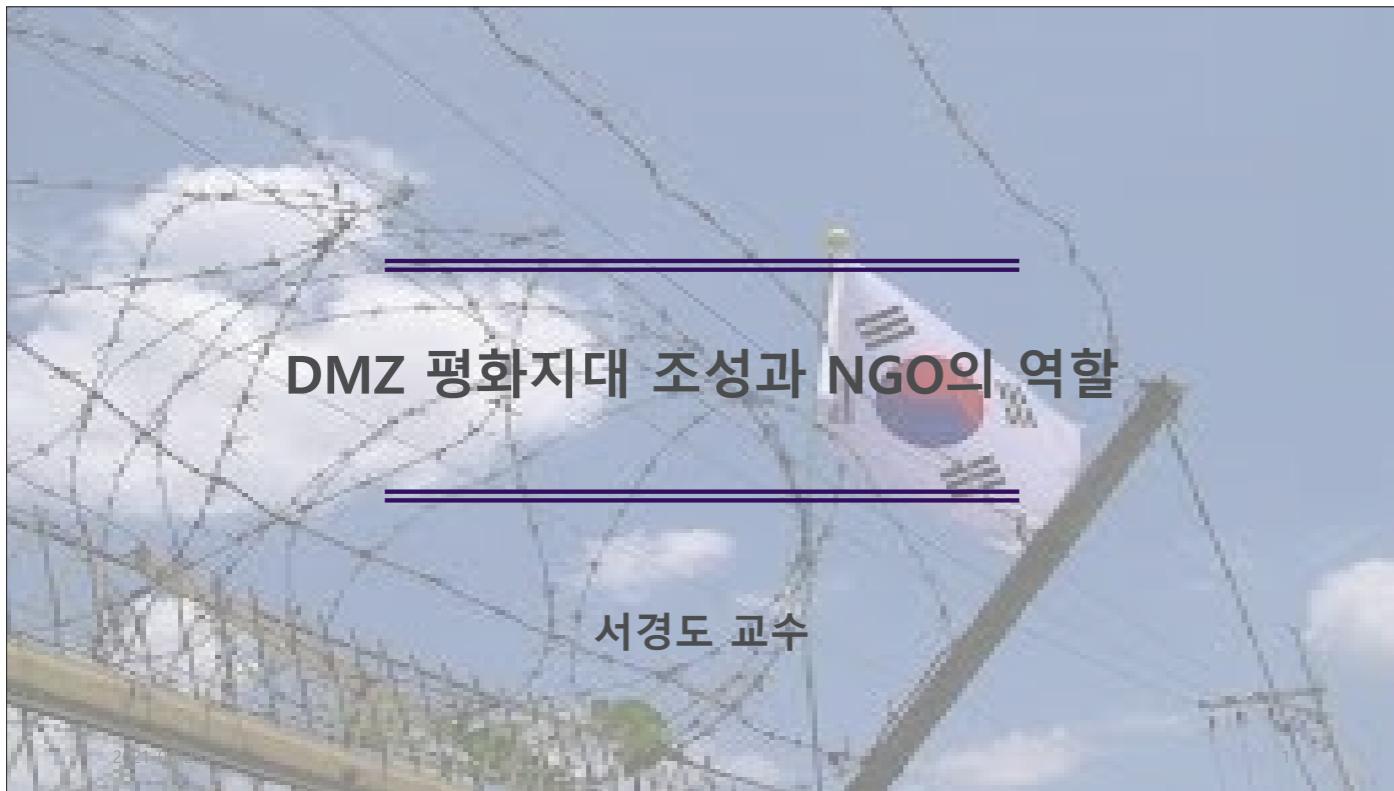
DMZ Peace Zone Symposium



발제1

DMZ 평화지대 조성과 NGO의 역할

서경도 교수
(금오공과대학교)



목차

- V DMZ 문화평화 구축 방안
- VI 국가 간 갈등 해결에 있어 NGO간 연대 성공 사례
- VII DMZ 내에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과 국제기구 유치

2021-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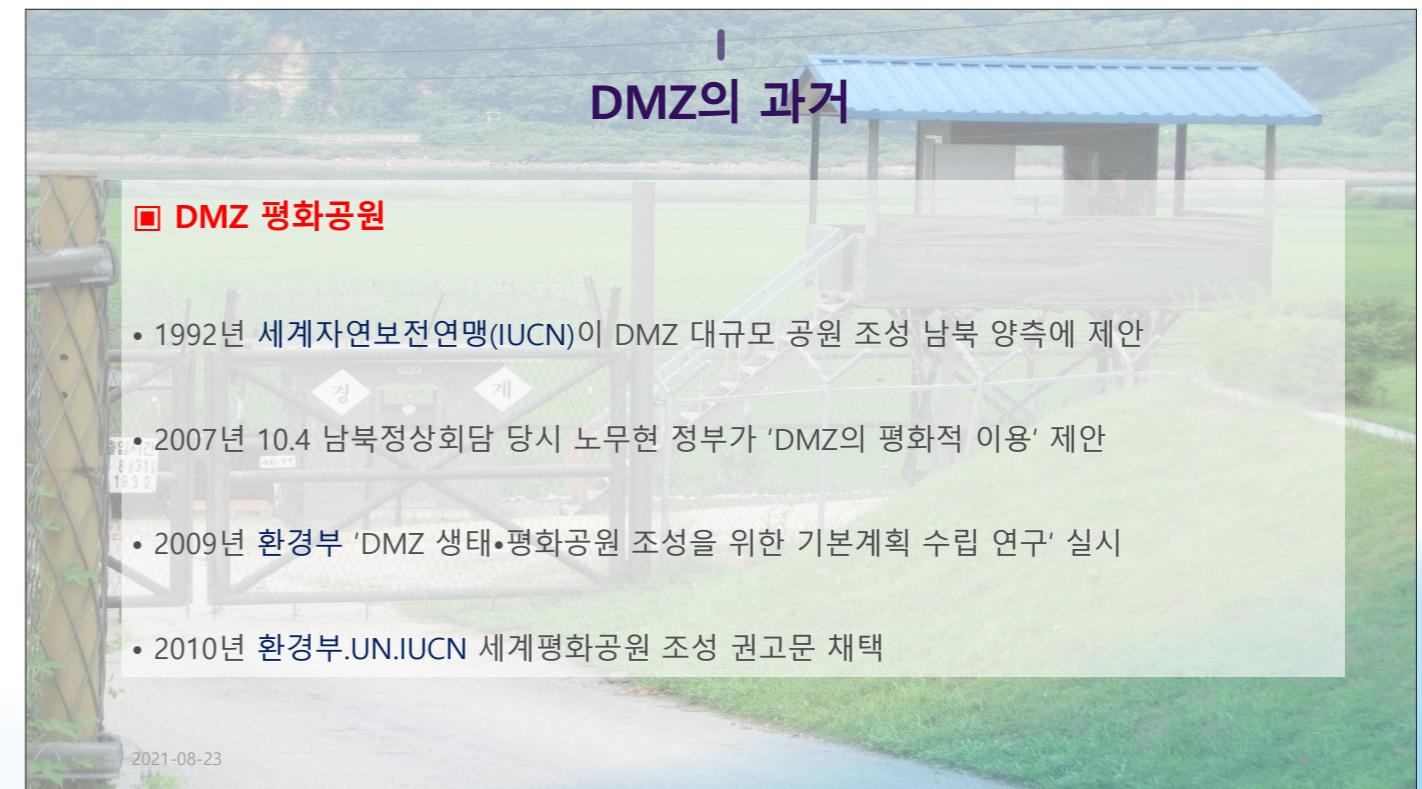
3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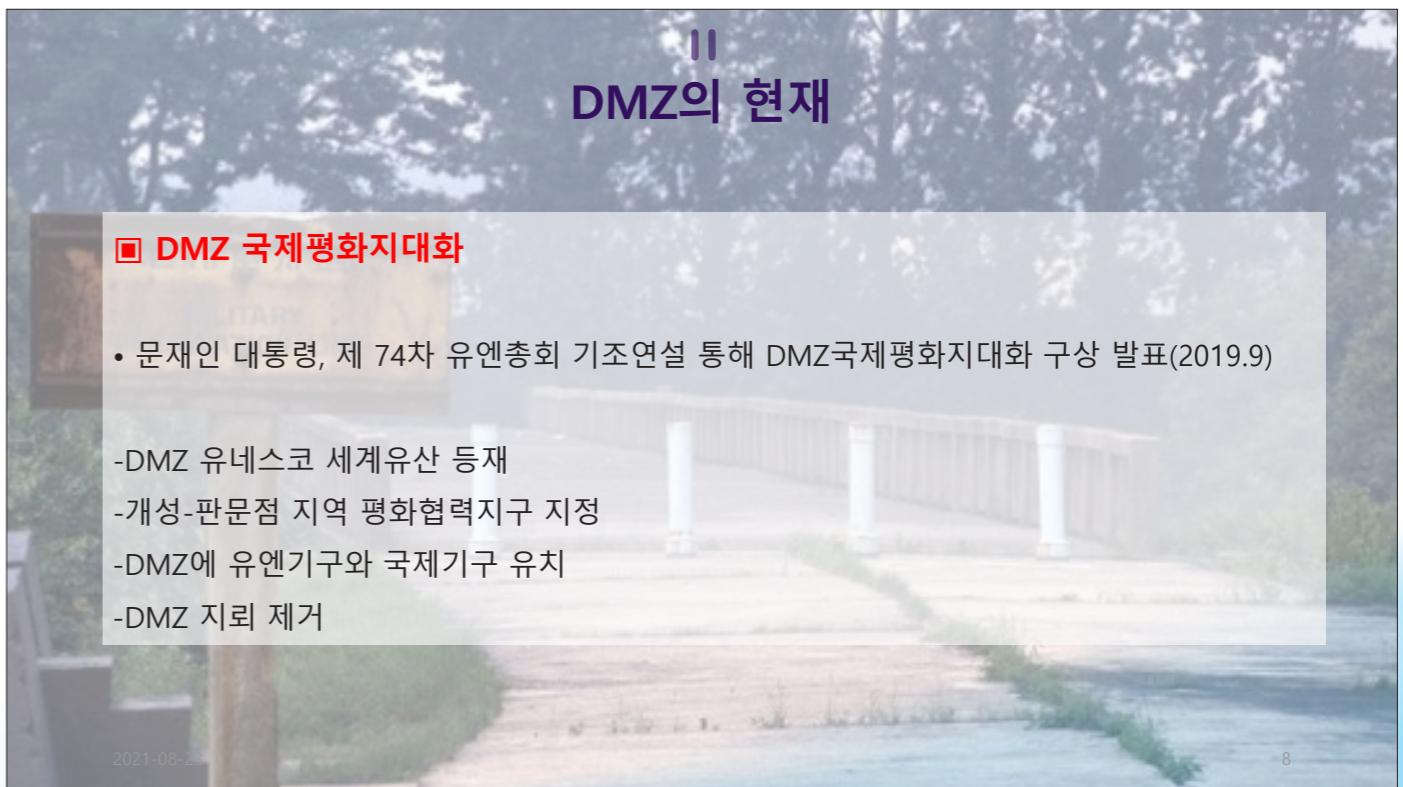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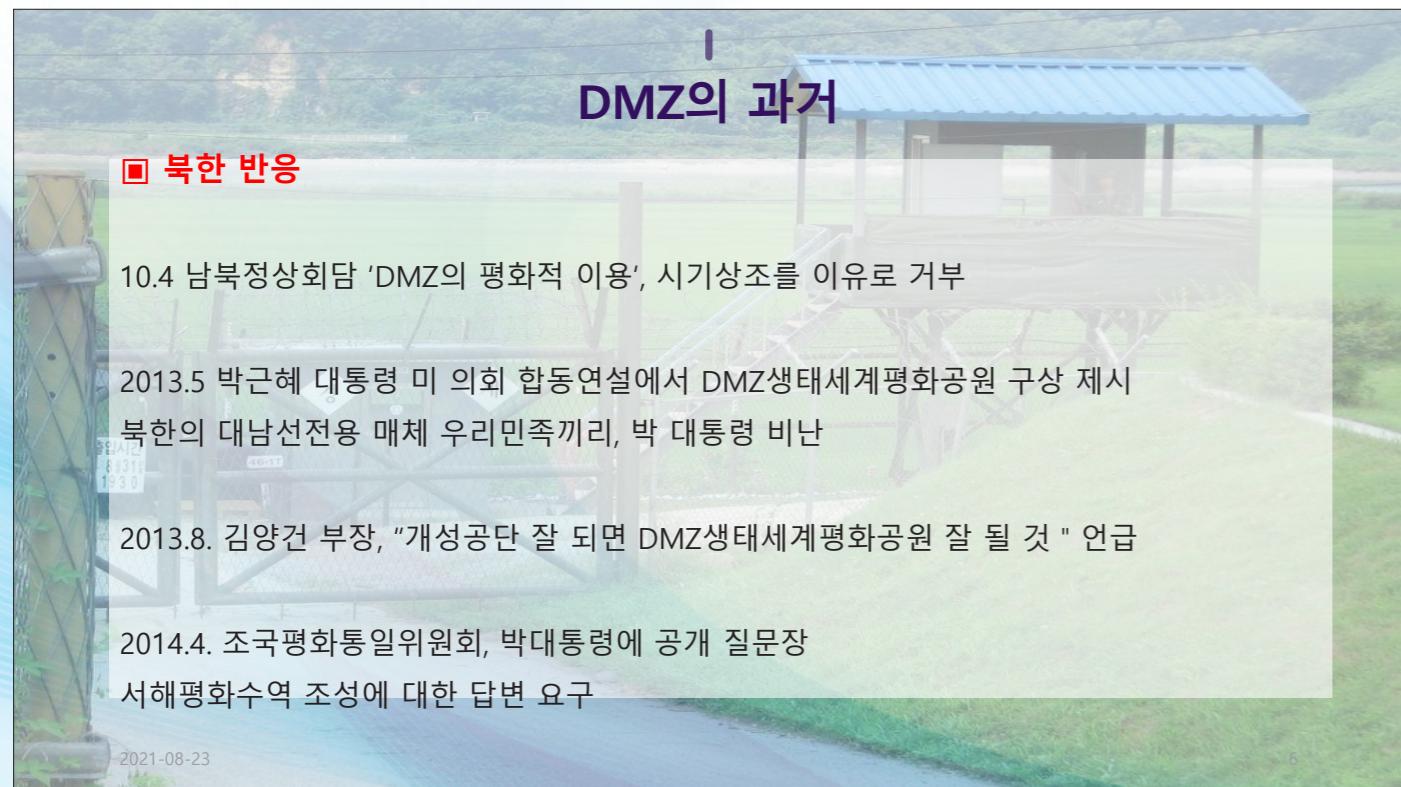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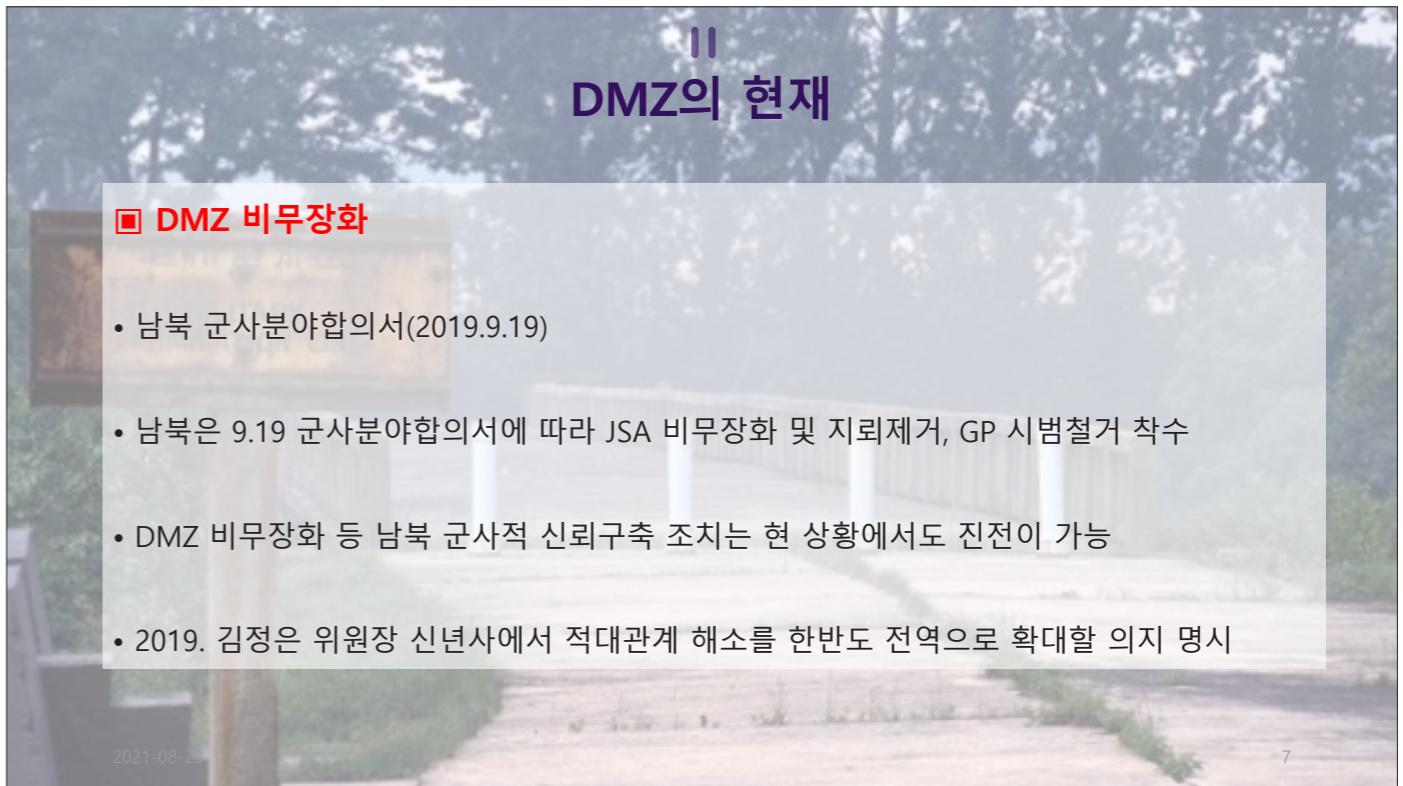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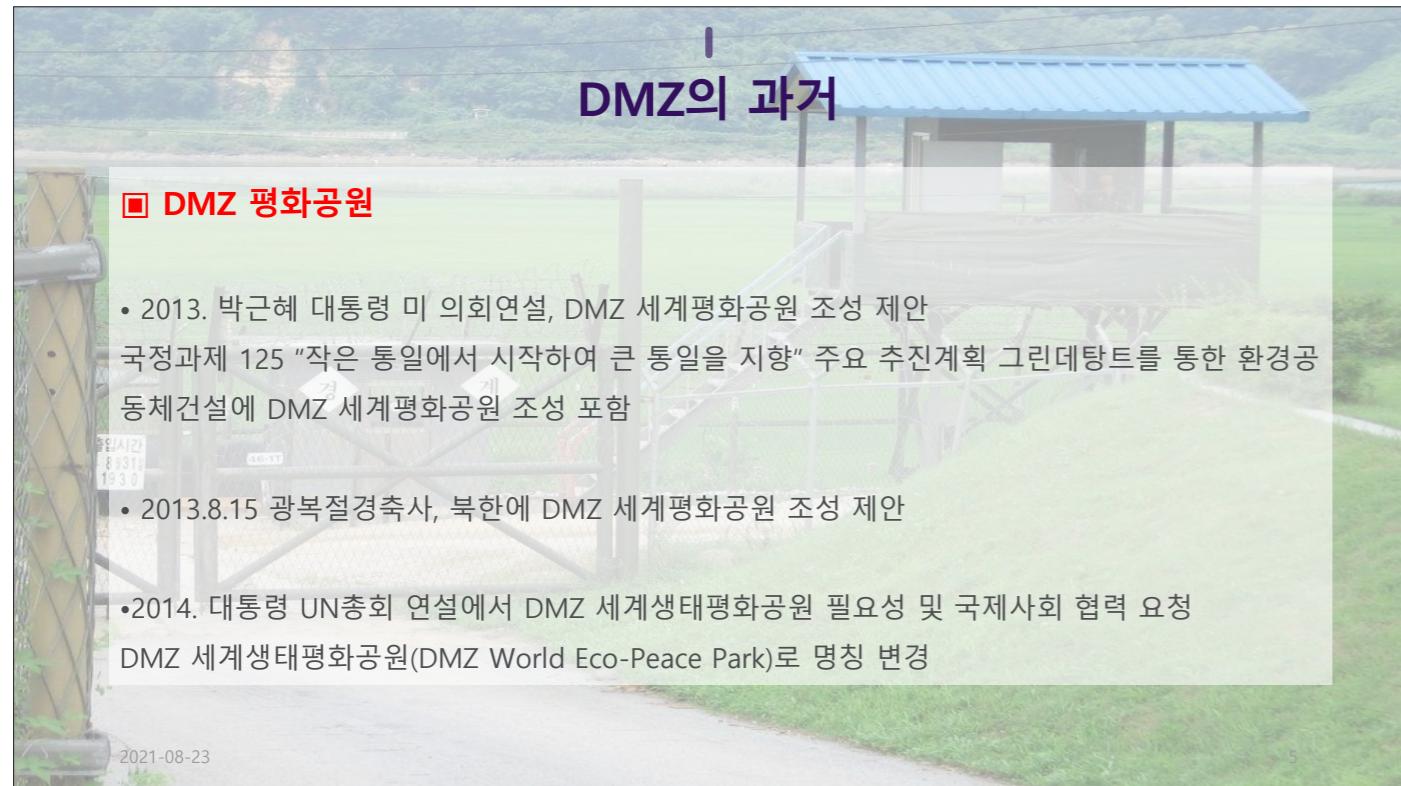
- I DMZ의 과거
- II DMZ의 현재
- III DMZ의 가치
- IV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제3섹터인 NGO들의 역할의 중요점

2021-08-23

2



2021-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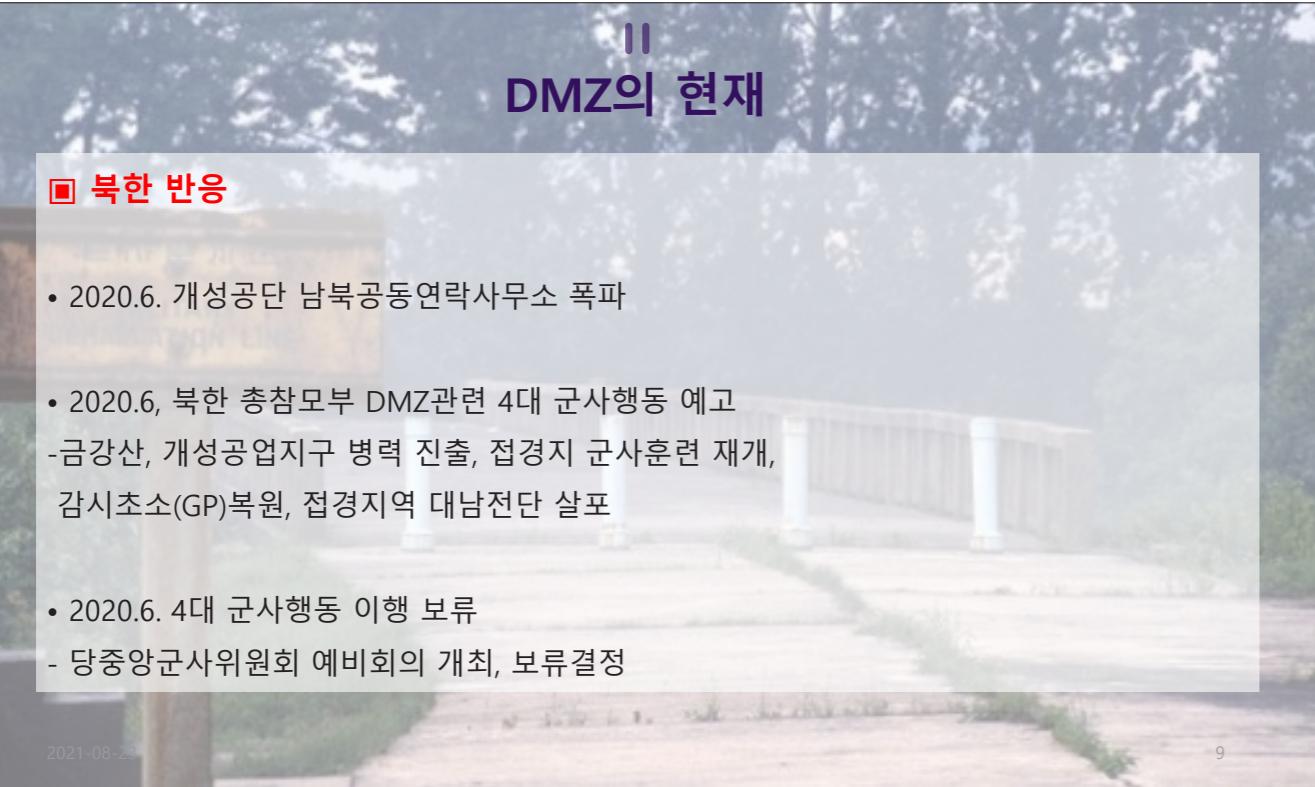
II DMZ의 현재

▣ 북한 반응

- 2020.6.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2020.6, 북한 총참모부 DMZ관련 4대 군사행동 예고
 -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병력 진출,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감시초소(GP)복원, 접경지역 대남전단 살포
- 2020.6. 4대 군사행동 이행 보류
 - 당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 개최, 보류결정

2021-0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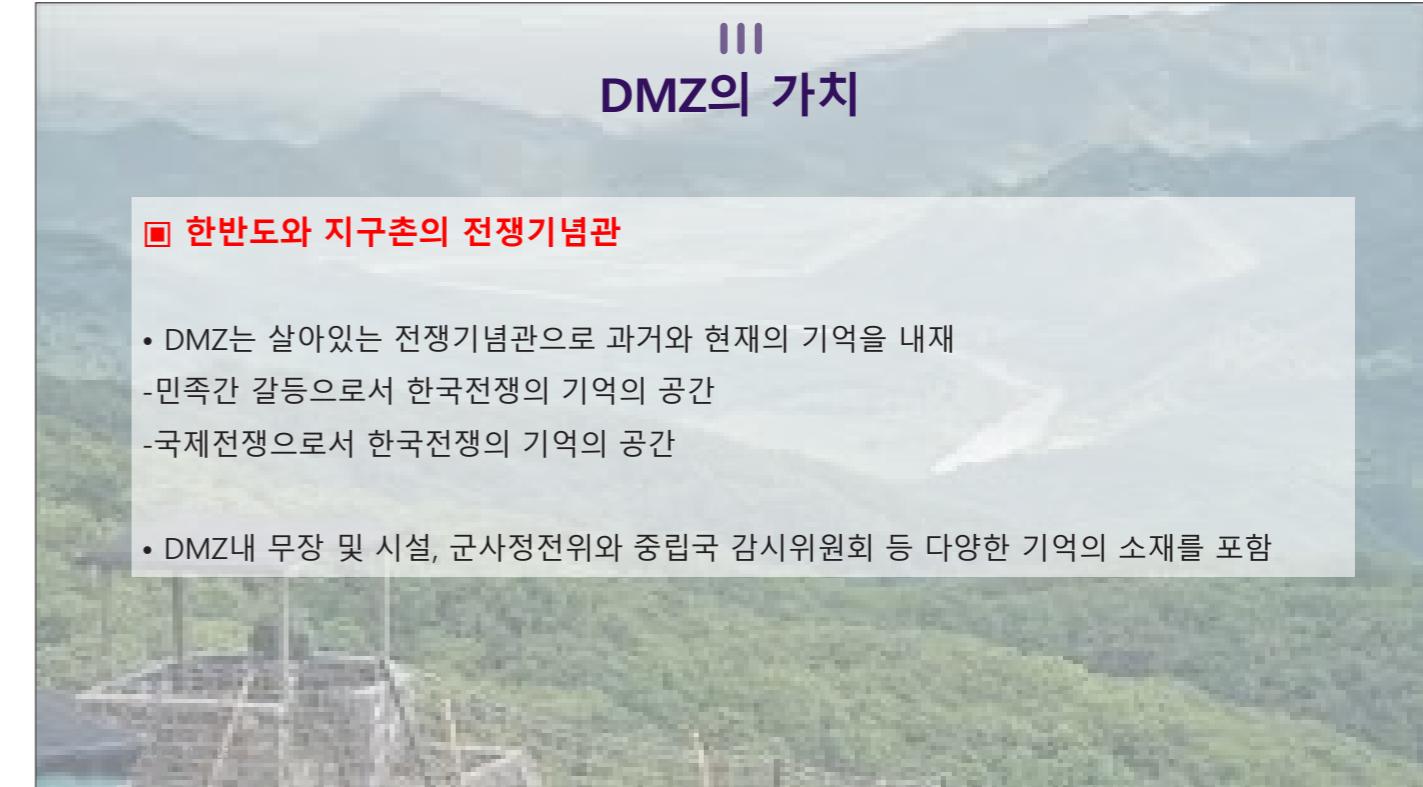
9



III DMZ의 가치

▣ 한반도와 지구촌의 전쟁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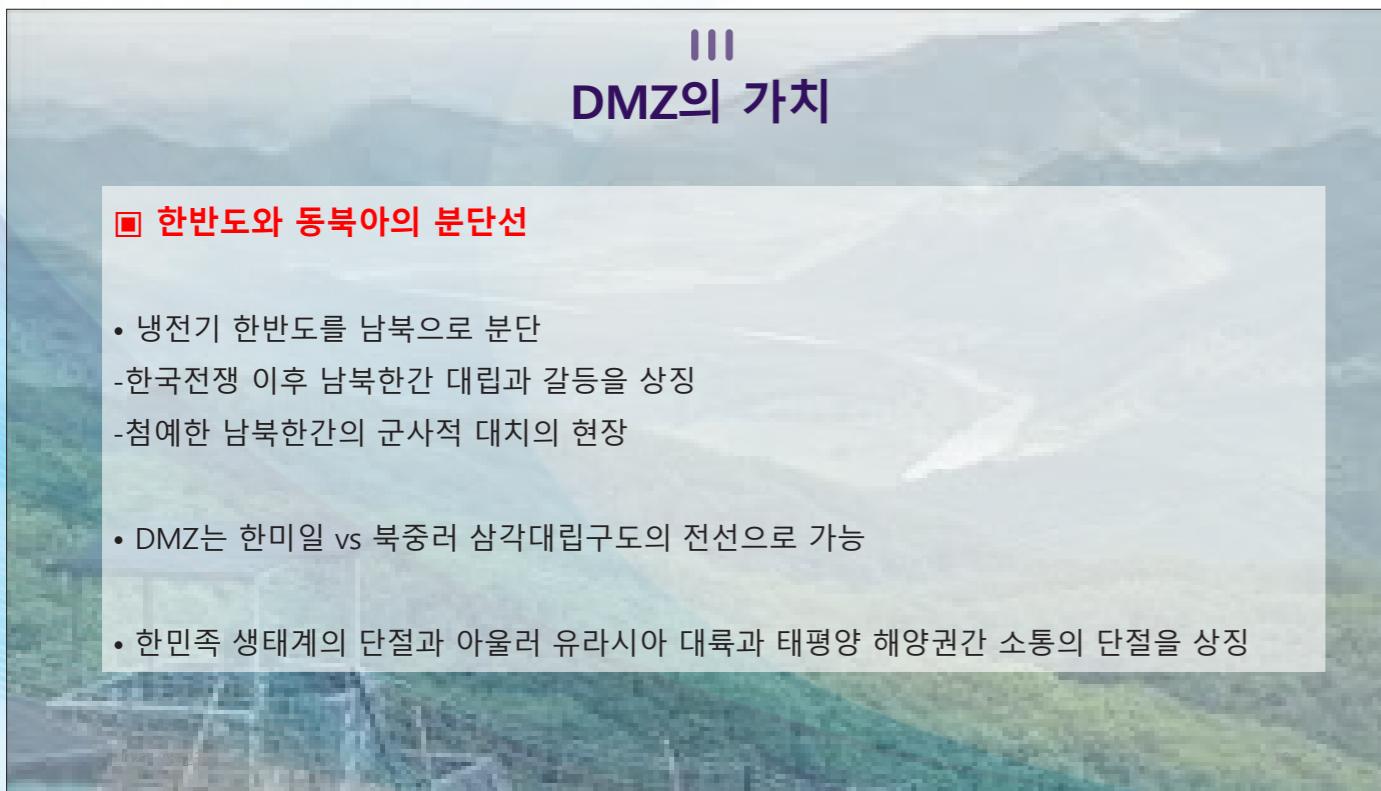
- DMZ는 살아있는 전쟁기념관으로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내재
 - 민족간 갈등으로서 한국전쟁의 기억의 공간
 - 국제전쟁으로서 한국전쟁의 기억의 공간
- DMZ내 무장 및 시설, 군사정전위와 중립국 감시위원회 등 다양한 기억의 소재를 포함



III DMZ의 가치

▣ 한반도와 동북아의 분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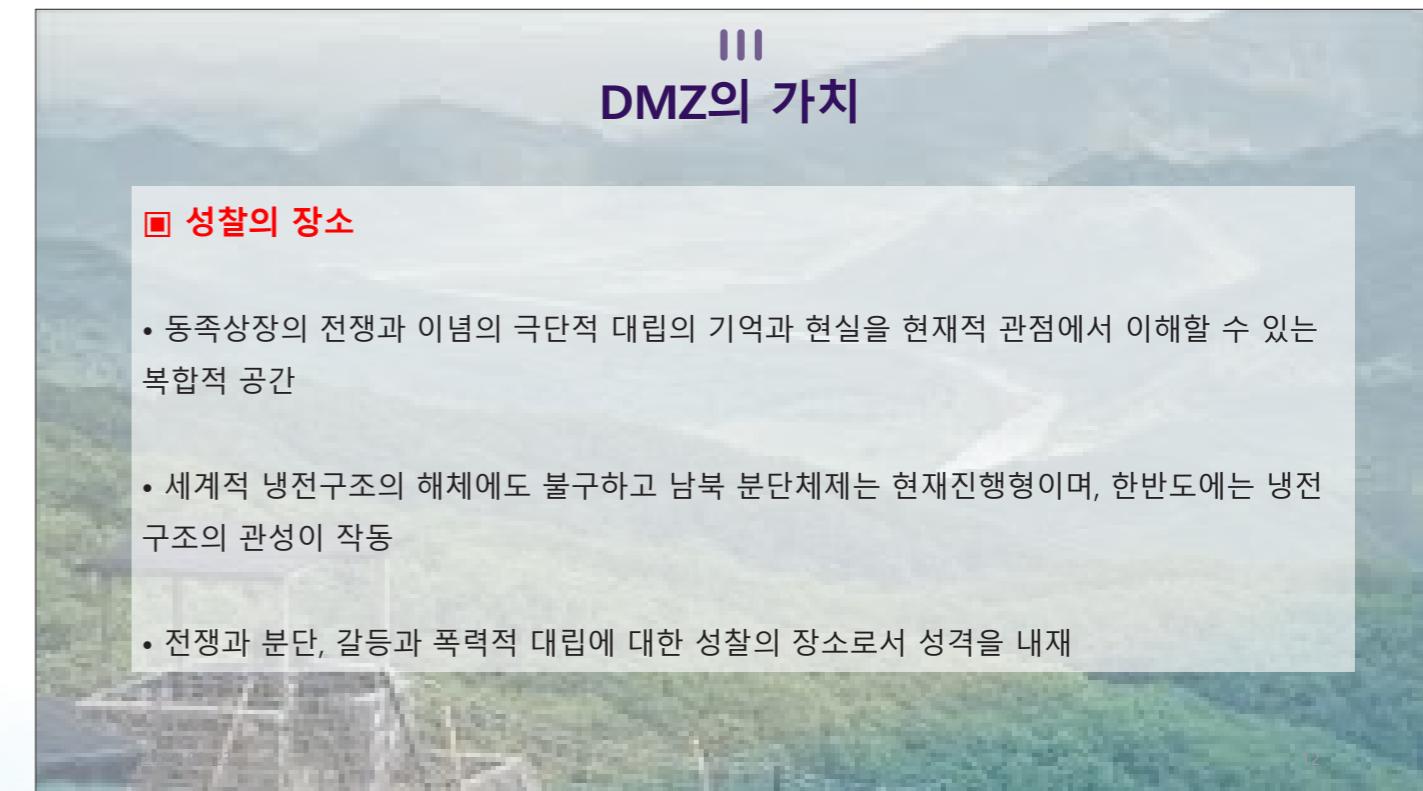
- 냉전기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
 -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간 대립과 갈등을 상징
 - 첨예한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의 현장
- DMZ는 한미일 vs 북중러 삼각대립구도의 전선으로 가능
- 한민족 생태계의 단절과 아울러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권간 소통의 단절을 상징



III DMZ의 가치

▣ 성찰의 장소

- 동족상장의 전쟁과 이념의 극단적 대립의 기억과 현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
- 세계적 냉전구조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체제는 현재진행형이며, 한반도에는 냉전 구조의 관성이 작동
- 전쟁과 분단, 갈등과 폭력적 대립에 대한 성찰의 장소로서 성격을 내재



III DMZ의 가치

▣ 한반도 및 세계평화의 상징적 잠재성 내재

- DMZ 평화지대화가 완료될 경우 한반도 평화상태의 달성과 아울러 세계적인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전환이 가능
- 한국적 평화모델인 동시에 세계적인 평화의 아이콘 및 랜드마크로서의 잠재성을 내재

III DMZ의 가치

▣ 다크 투어리즘

- DMZ는 민족전쟁이자 국제전쟁인 한국전쟁의 과거와 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내재
- DMZ 외국관광객의 90%가 한국의 관광지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곳으로 평가, 한국 방문 외국관광객 60%내외 DMZ 인지
-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의 진전, DMZ 접근성 개선 등이 수반될 경우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가능성

III DMZ의 가치

▣ 한반도 및 유라시아 생태의 거점

- DMZ는 전쟁의 상처를 자연 스스로 치유한 고유한 생태적 의미를 내재
- DMZ는 한반도의 횡적 생태축인 동시에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생태축
- DMZ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생태계를 연결하는 동북아 생태계의 거점

III DMZ의 가치

▣ 세계인의 유산

- DMZ는 이미 전세계인의 기억속에 각인된 국제적 장소라는 점에서 남북한만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내재
-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넬슨 만델라 대통령 등 이미 DMZ의 평화적 이용 또는 세계평화 공원 등의 구상을 제시
-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생태를 애호하는 세계인의 관점에서 조망이 필요

IV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제 3섹터인 NGO들의 역할의 중요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NGO의 역할은 남북통일을 대비한 **인권, 빈곤, 환경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NGO를 통한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훨씬 우호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과거경험으로 비춰보았을 때,

NGO는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 일반적인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빈곤, 환경, 협력개발, 문화교류 등

실제적인 국가 혹은 민족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그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2021-08-23

17

문화예술교류, 음악, 문화유산, 영화, 생태과학교육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 남북한의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공간마련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둘째, 세계적인 평화생태조합관광지로 선정되어야 한다.

셋째, 생태교육의 체험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021-08-23

19

IV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제 3섹터인 NGO들의 역할의 중요성

NGO들의 중요 역할

첫째,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대한다.

둘째, 남북 관계의 완충망 역할을 한다.

셋째, 사회문화적 인식변화를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

넷째, 경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도적 참상 완화에 기여한다.

다섯째, 환경 분야에 기여한다.

여섯째, 군사 분야에 기여한다.

이처럼 NGO는 주변국들의 정책형성에 영향을 주며, 국제적 여론과 환경조성이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주변국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NGO의 중립적인 중재 역할

완충망 기능 및 각종 문제해결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21-08-23

18

V DMZ 문화평화 구축 방안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된다면 각종 문화예술교류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예술인들을 불러들여 새로운 문화의 창출과 무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통해 문화적 창출되는 만큼 남북한 및 세계 각국인들을 통해 다양한 영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인류평화의 가장 모범이 되는 하나의 상징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으로 인해 평화와 생명의 터전으로 승화시키고 유네스코의 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2021-08-23

20

VI 국가 간 갈등 해결에 있어 NGO간 연대 성공사례

메릴랜드대학교 국제개발과 갈등조정센터, 카터센터, 화해조정지원단, 국제비상대책단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NGO와 국제재단의 연대, NGO와 국제기구의 연대, 국제 NGO와 지역 NGO의 연대, 국제NGO와 정부, 국제NGO와 정부 및 국제기구의 연대 등이 바로 그 예다.

초국가적 NGO연대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갈등의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초국가적 NGO연대는 다양한 국가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문제인 인권, 빈곤, 환경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초국가적 사회운동을 펼쳐 그 지역에 운동의 가치와 행동양식을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2021-08-23

21

VII DMZ 내에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과 국제기구 유치

DMZ 내의 NGO 국제연대 본부와 컨벤션 센터 건립의 명분과 더불어

북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도출하기 위한 부단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NGO 국제연대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명분제시와 이해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남북이 평화공조체제로 나아가고, 지원과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평화통일의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경시할 수 없다.

남과 북의 대치국면을 타개하고 통일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과 그 실행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을 향한 험난한 과정의 일면을 나타내어 현재와 미래의 통일 지향점을 제시하고, 보다 더 구체적이면서 현실성 있는 로드맵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2021-08-23

23

VI 국가 간 갈등 해결에 있어 NGO간 연대 성공사례

또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명확한 목적과

그 수행하는 활동가의 사명감과 인내심이 투철해야만 한다.

NGO의 대표의 뛰어난 개인적인 능력도 이러한 국가 간의 갈등에서 비외교적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제NGO활동의 성공적인 요인으로 특정한 정치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적인 민족주의 혹은 폐쇄국가 중심주의를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공정하고도 인도적인 정책결정과 수립이 필요할것이다.

2021-08-23

22

감사합니다

2021-08-23

24



발제2
한일해저터널과 한반도 평화

박성열 박사
(UPF 부산지부)

한일해저터널 in Peace Road

연결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CONNECTING



국제기구 유치해 'DMZ 평화지대화' 완성 2018.08.16 KBS

동북아 철도 공동체와 DMZ

-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

정부는 더 나아가서 DMZ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조성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차

- DMZ와 동북아 철도 공동체
- 문명의 흐름과 로마의 플랫폼 전략
- 세계사를 바꾼 길
- 한일해저터널의 필요성
- 동북아의 지정학적 고찰
- 승리의 전략적 공간을 장악하라
- 기회의 창은 열렸다!

중국에서 한국을 통하여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권 대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전 세계로 통하는 자유권 대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중략) 만일 이것이 건설되면 아시아 3국은 문자 그대로 평화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일체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나 문화교류가 빈번해지며, 문자 그대로 아시아 문명공동체가 형성 될 것입니다.... 자유를 보장받는 신경제 기반 위에 평화고속도로권을 발전 시킬 것입니다. - 1981년 11월 10일, 10차 국제과학자 통일회의(ICUS) / 10명의 노벨 수상자, 770명 과학자 참석



한일해저터널을 통해서 전세계에 나타나는 암담한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어야 한다.

2016년 11월 14일
한학자 총재 카라츠 한일터널 현장

文明發達 移動 과정



팍스 로마(Pax Romana.로마의 평화)

30만km, 지구 7바퀴



- 로마제국: 유럽, 아프리카,
 - 중동까지 진출
 - 같은 세기 동양 진시황제 만리장성 비교
 - 고규격 도로의 광역적 정비가 평화의 인프라
 - 역사적 증명

태평양문명의 특징

- 태평양(Pacific Ocean):Peace를 상징
 - 지천(地天)시대- 신 모계사회-평화의 시대
 - 대서양문명:남성,무력,약육강식,힘의 질서.서양중심
 - (Hard power)
 - 태평양 문명:여성,모성,자궁,새생명의 임태,포용,배려
 - (Soft power)
 - 동서양 융합(Hybrid,Convergence,Fusion)
 - 서세동점(西勢東漸)-동세서점(東勢西漸)

로마의 플랫폼전략 이란 ?

- 정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 역사적 의미: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 예: 로마 천 년의 비결
 - 지성에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 에르투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 카르타고인보다 못했다. 대신에 로마는 이들을 담아서 플랫폼 역할 했다.
 - 덕분에 교육, 경제, 전쟁의 경쟁력은 나날이 발전했다.

수에즈 운하(116km) -레셉스.1869년 11월개통



- 아프리카 희망봉우회-지중해를 거쳐 곧장 인도양
- 부산에서 로테르담(네덜란드)
희망봉경유-2만7000km
- 수에즈 운하2만200km,
- 시간적으로 1주일단축
- 전 세계물동량14% 점유

9

파나마 운하-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82km



- 선박이 뉴욕에서 이 해협으로 샌프란, 시스코까지 항해하는데 거리가 8,370 km 정도인데, 기존 방식대로 혼 곳으로 우회하면 거리가 그 두 배가 넘는 20,900km에 달한다

10

시어도어 루스벨트(26대) 대통령의 집념

- 1902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집요한 운하 건설의지로 미상원은 파나마운하 건설 최종표결에서 42:34로 운하 건설안을 채택하였다.
- 파나마 운하는 단계적으로 확장과 개선 작업이 진행되어 대형전함과 유조선, 그리고 화물 운송선도 지날수 있게 되어 20세기 후반 해운 혁명의 근간이 되었다.
- 이 운하 개통후 미국의 수출과 해운투자는 급증했고 해외시장과 원자재는 역동적인 미국 산업경제의 초석이 되었는데, 1929년 미국은 전세계 총산업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 1등 국가가 되었다.

한일터널의 필요성 - 1

하나. 국제질서 재편과 세계경제 중심축의 동북아로 이동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한일터널 건설을 통한 물류망	한일 양국 지역간 교류 활성화	일일 생활권 시대의 대비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내셔널리즘을 억제 ● 제 물리적, 군사적 충돌 방지 ● 완충제로서의 역할 기대 <p>*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도시권 : 북경, 천진, 서울, 동경, 오사카</p> <p>*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 112개 (총 도시인구 → 1억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경제권 형성 ● 양국 FTA 체결 촉진 ● 경제 활성화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의 일일 생활권화 ● 짧은 시간의 왕래에 대비 <p>* 시속 500km 고속철 시대 도래 시 한일 양국 30분대 거리</p>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부산, 서울, 청주, 대전, 광주, 부산, 히로시마, 후쿠오카

《註5》 베이징-서울-도쿄 초국간적 도시회관(IE SETO)의 도시연구 및 도시수

구 분	면적 (㎢)	도시수
중국 베이징-세가오좡리스	31,556	36
북한 신의주-개성-여기로쭝리스	3,997	9
남한 서울-부산-여기로쭝리스	22,200	25
일본 후쿠오카-여기로쭝리스	26,200	57
세계 평균	58,464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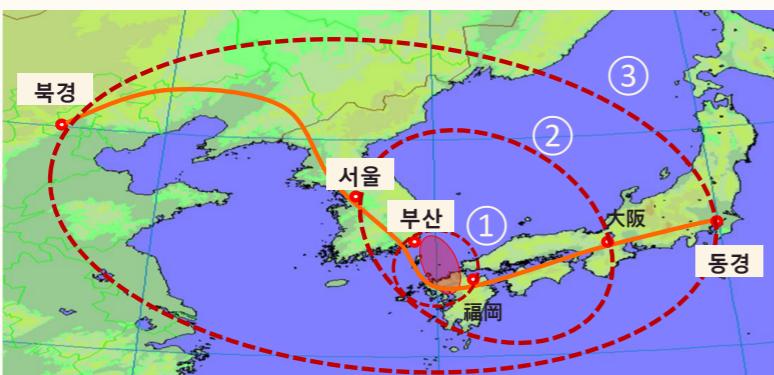
Population (1,000)

한일터널의 필요성 - 2

둘.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 환경 조성

- 한일터널 건설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각국의 영향력 행사 기대
-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북한의 개방화에 기여

셋. 한일터널은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



신한반도 체제와 새로운 북방경제권 그리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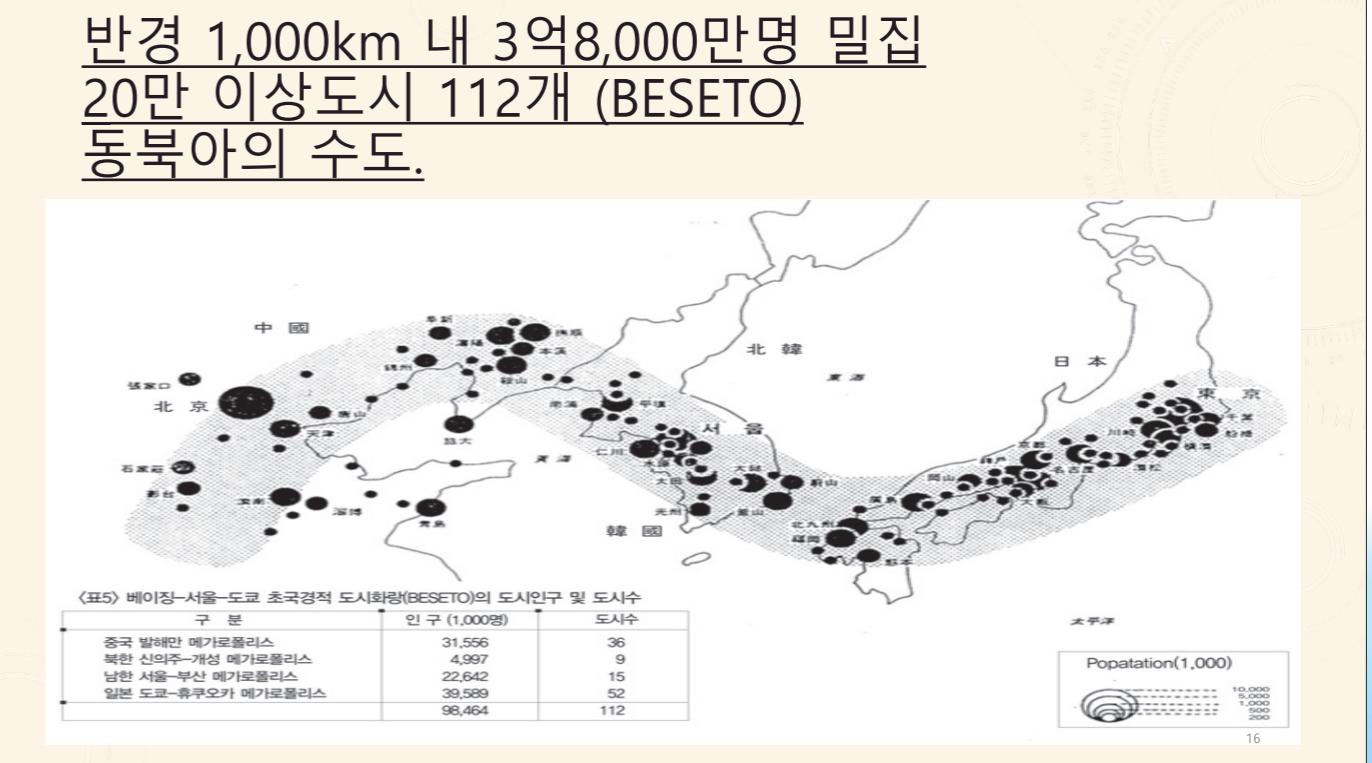
- 유엔기구(UNESCAP, 2005-2015)에서 세계3대 교역권에 대한 물동량을 조사한 결과 매년 10%씩 증가하였다. 앞으로 10년 동안 2배 이상의 고부가 가치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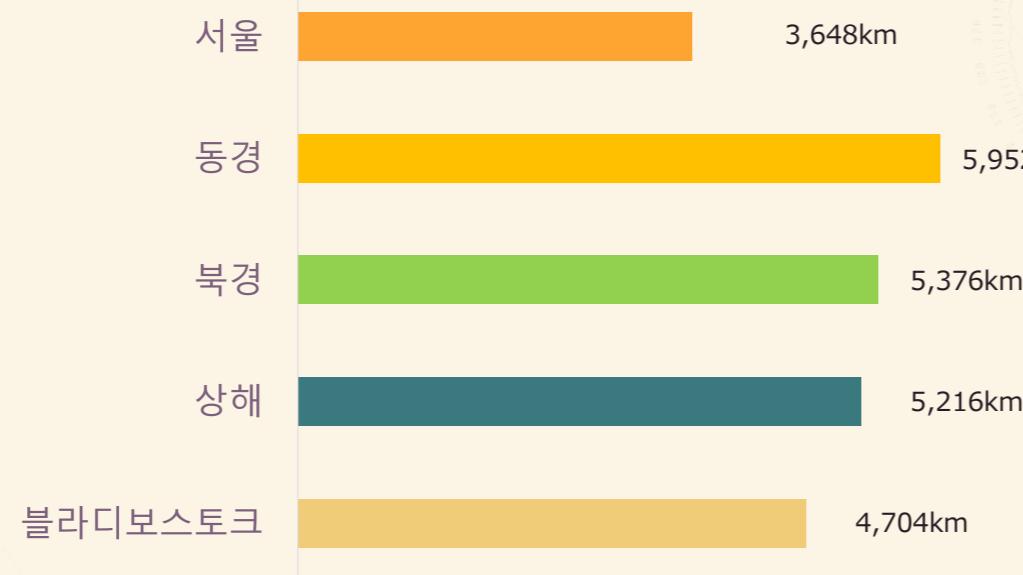
한중정상 "서울-신의주-중국 철도건설 검토가능
2018년 5월9일 376km, 6년, 240억달러



반경 1,000km 내 3억8,000만명 밀집
20만 이상도시 112개 (BESETO)
동북아의 수도.



■ 동북아 5대 도시간 거리(Airport)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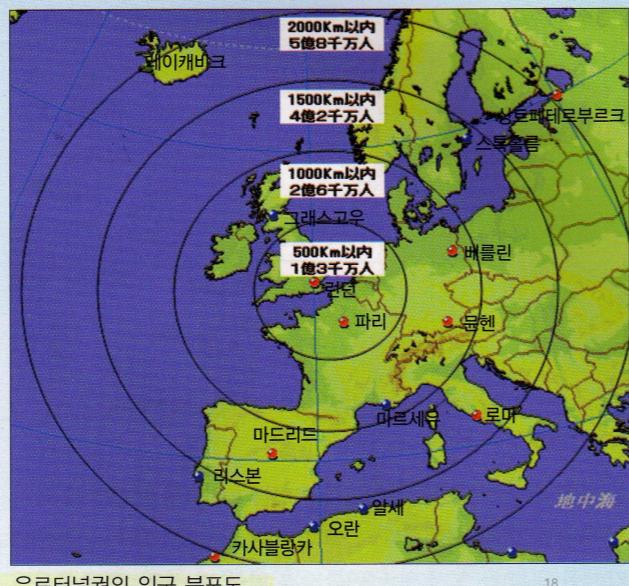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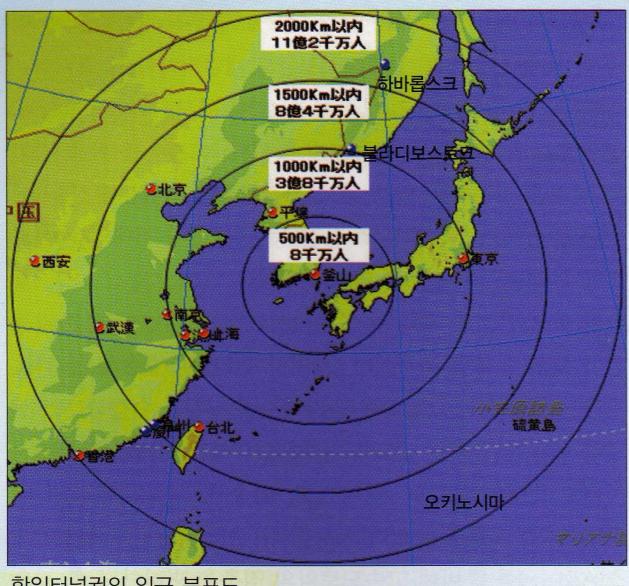
북극항로 기종점-부산(Sea port)



- 수에즈 운하 보다
- 최대 2주 단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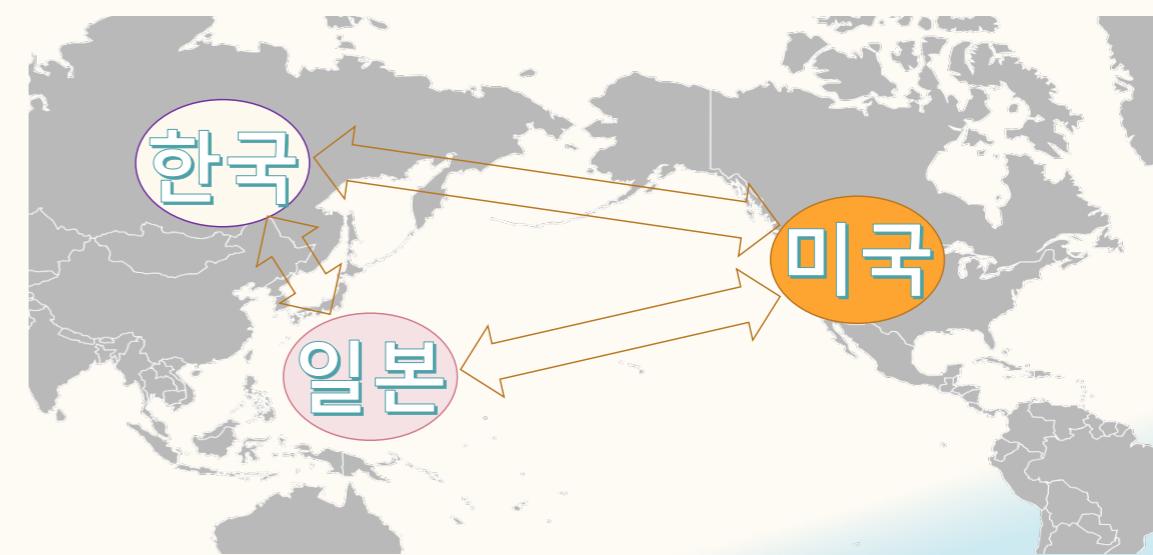
19

한일터널권과 유로터널권 인구분포 동북아 수퍼허브 (Train port)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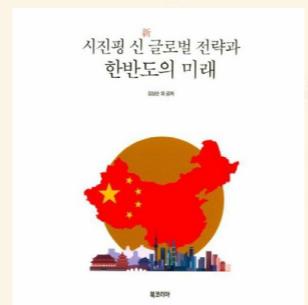
한일해저터널 미국의 동북아 정책(Game Changer)-지정학적 대변동



김상순
대만대학 사회학 석사, 칭화대학 CEO-EMBA, 베이징대학 CEO-EMBA,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 박사

■ 동북아에서 진행중인 '안보전쟁'과 '경제전쟁'에 대한 우리의 복잡한 해법을 찾고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두 가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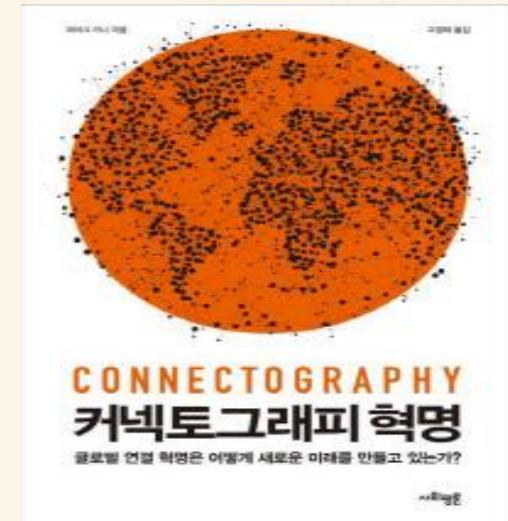
- 첫째는 '국제공동이슈'의 '개발'이고 둘째는 국제공동이슈의 '선점'이다.
- 이것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우리가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전쟁에서 취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주도적인 외교전략이 아닐까?



"연결은 운명". 21세기 제국은 영토보다 연결! (connecting is destiny!)

“연결은 세계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다.”

- 기반시설혁신, 제도등에 비해 25%이상의 투자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기반시설투자는 공장 건설보다 더 지속성이 높다.
- 국제통화기금(IMF)도 기반시설 건설 권장



23



22

중국의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계획이 아닌 전략(개념설계)



러시아, 일본에 '철도 연결' 제안... 소외되는 한국 16.10.4 동아일보 .코리아 패싱



< '기회의 창'(The Window of Opportunity) 의 특성 >

- 기회의 창이 열렸는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 기회의 창은 대부분 잠겨 있다
- 기회의 창은 특정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 매우 짧은 기간에만 열렸다가 순식간에 닫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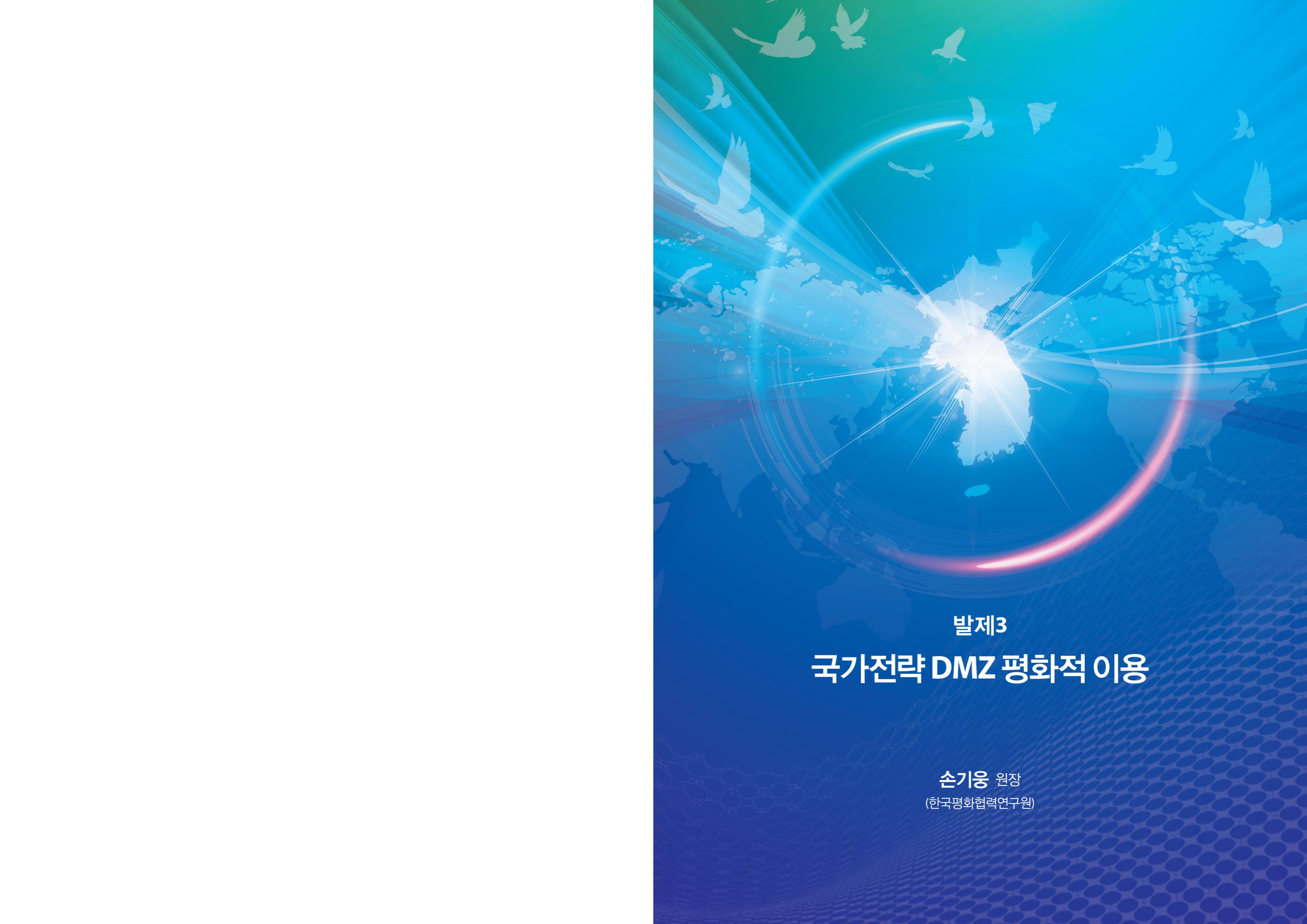
DMZ평화 ZONE 과 한-일 해저터널건설의 '기회의 창'은 반드시 열였다.

문제는 그것을 인지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를 우리가 언제 만들 수 있느냐의 여부....

유라시아 29개 철도장관회의. 21년 6월 15-18일 (화상) 2023년 한번더 개최

평화의 상징으로써 국제기구인 철도협력기구 사무소를 유치로 남북이 평화로 함께 나아가는 발판으로 !





발제3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원장
(한국평화협력연구원)

DMZ PEACE ZONE
심포지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
 한국DMZ학회 회장
 한·독 통일포럼 공동대표
 중국 천진외대 초빙교수
 前 통일연구원 원장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 원칙

- '평화': 인간과 인간 + 인간과 자연 간
- 갈등과 분쟁의 상징에서 인간이 신뢰하고 화합하는 지역
- 인간과 자연환경이 신뢰하고 화합하는 지역
- 남북관계 개선, 통일 준비 및 촉진에 기여
- 이용과 보전 간의 조화
- 지역경제발전, 국토균형발전, 국가성장에 기여
- 북한 및 국제사회의 이해 포용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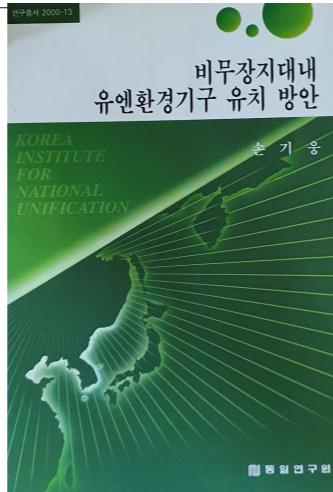
- DMZ는 모든 차원에서의 남북의 이해가 복합적으로 얹혀있는 곳
- DMZ를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어떠한 남북 합의·선언·협력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
- 남북이 DMZ 평화적 이용에 합의한다는 사실은 바로 서로가 정치·군사·경제·문화·환경 등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평화공존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 '정전협정' 당사자, 유엔,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DMZ 평화적 이용은 대 북한주민 항구적 통로 확보, 통일준비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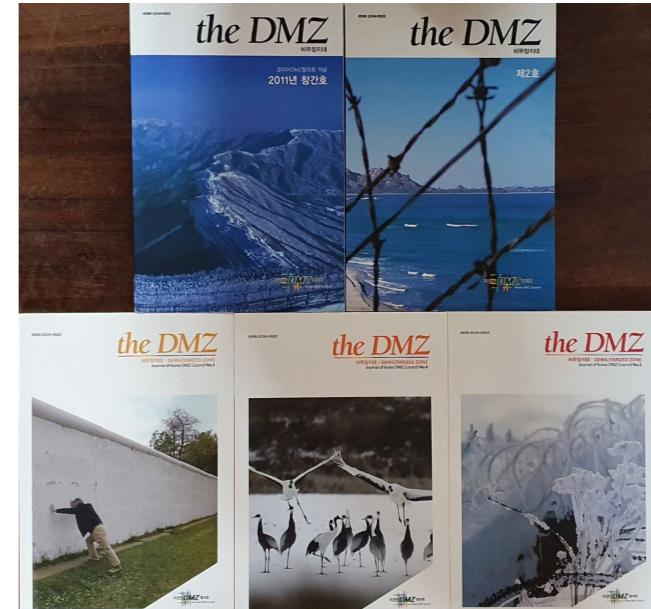
- 정치적 측면
- 군사적 측면
- 경제적 측면
- 문화적 측면
- 환경적 측면
- 국제적 측면

DMZ유엔환경기구

- 동북아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이 환경문제
- 동북아는 환경협력이 매우 어려운 상황
- 유엔의 권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엔 산하의 환경기구를 DMZ에 유치
- Agenda 21 지역협력 모범사례화
- 한반도 평화 정착
- 북한 변화, 통일 준비



DMZ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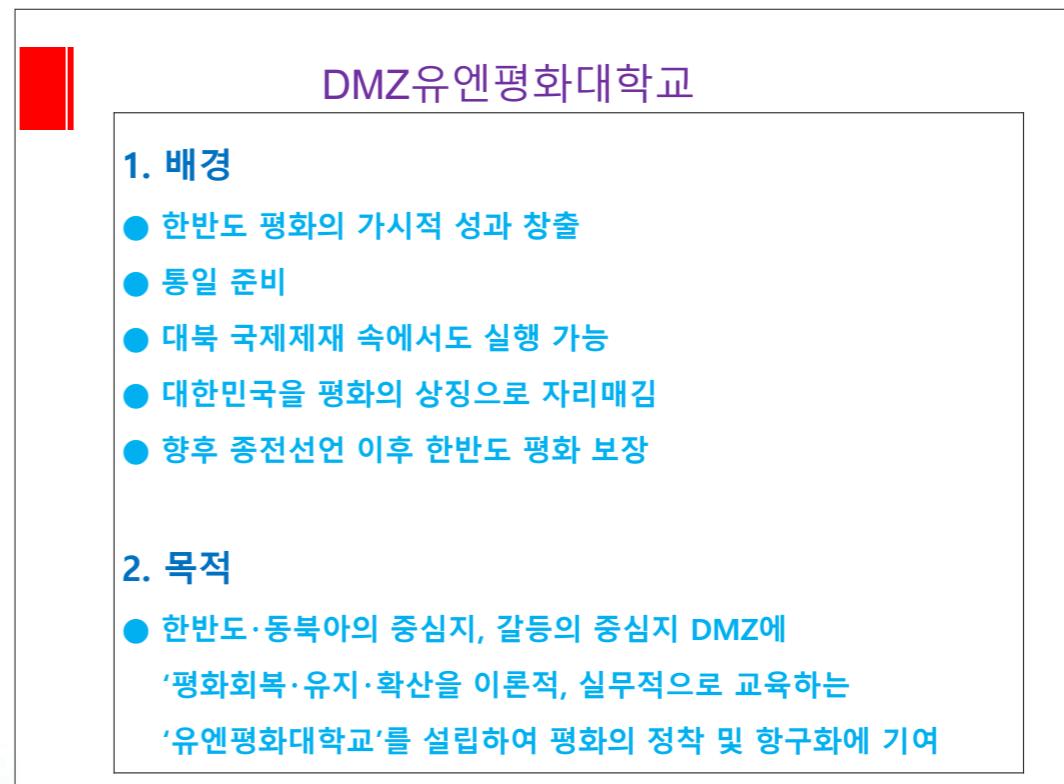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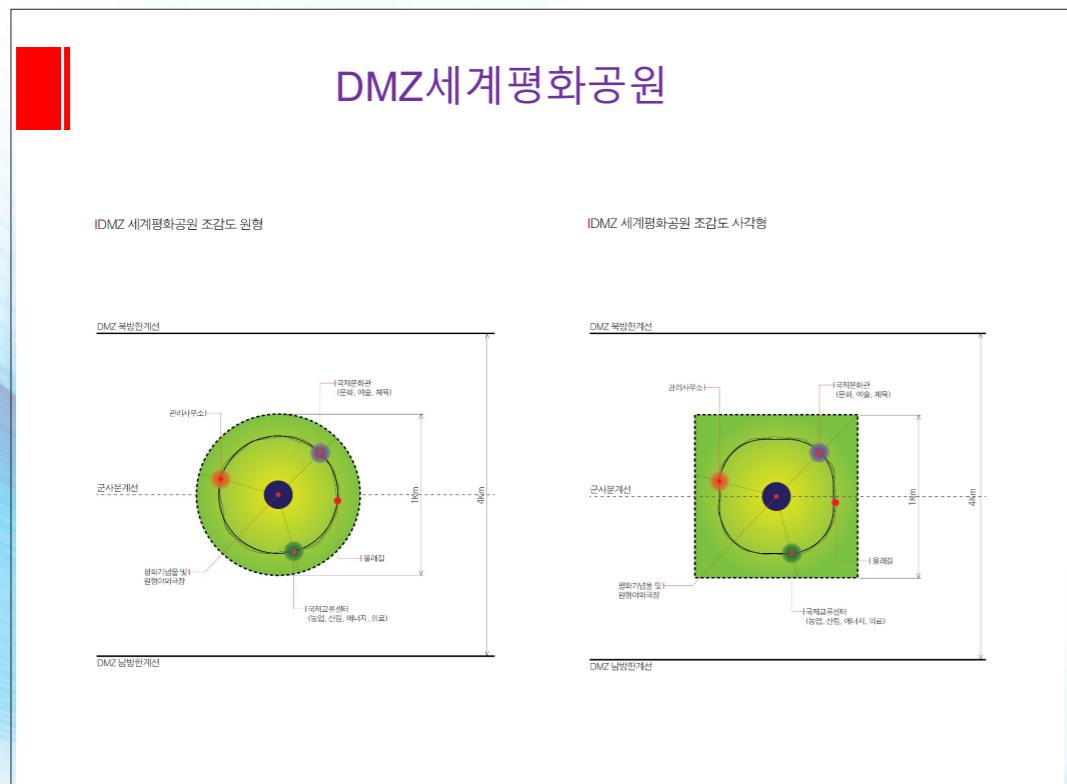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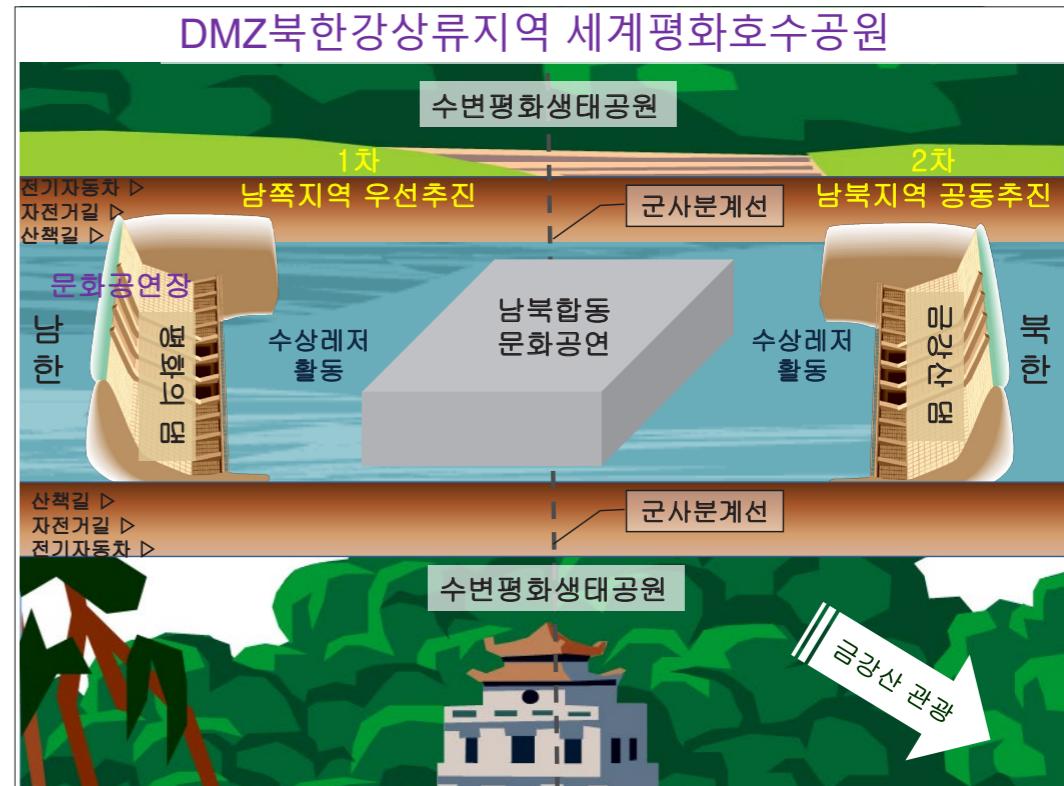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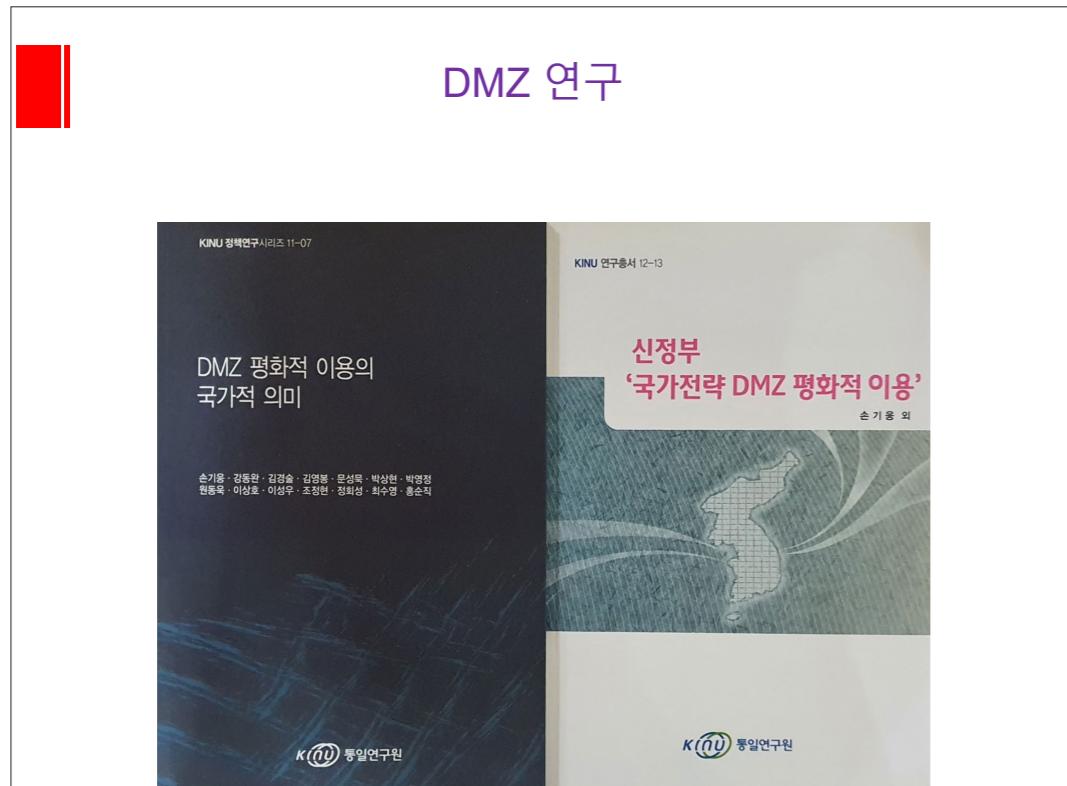


DMZ 연구



DMZ 연구





DMZ유엔평화대학교



DMZ유엔평화대학교 개교 기념사 나는 DMZ 시민입니다!

'DMZ유엔평화대학교'의 개교를 선언합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흘렸던 땀과 눈물이 이제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동서 간의 냉전이 가장 치열했던 1963년 6월 26일 유럽에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을 방문하여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화를 연결했던 존 F. 케네디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오늘 DMZ유엔평화대학교의 개교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2천여 년 전에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Civis Romanus sum)가, 55년 전에는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Ich bin ein Berliner)가 가장 자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지금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나는 DMZ 시민입니다”입니다.

오늘 남북한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통해 DMZ에 조그만 문을 엽니다. 이곳 DMZ에 유엔평화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식을 가지고 평화를 이끌고자 노력한 모든 사람의 결실이 이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DMZ 전역에, 한반도 전역에, 동북아 전역에 이 평화의 나무가 뻗어 자라나가도록 다시 씨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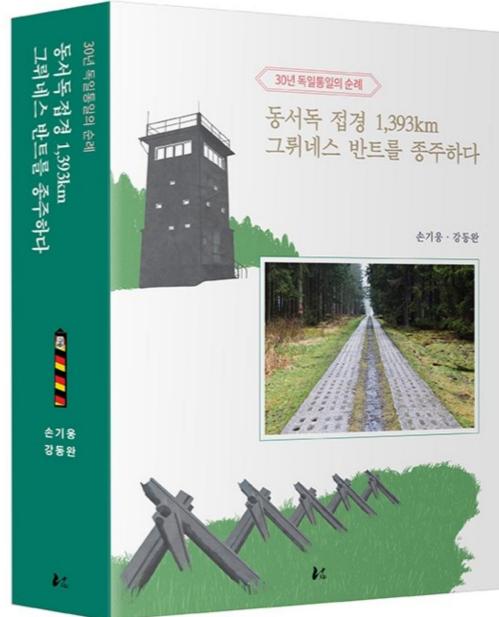
DMZ로 오십시오. 평화로운 권리, 지속적인 평화 속에서 살 권리와 원하고 노력한 모든 사람은 이제 DMZ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DMZ 시민권자 여러분, 평화란 불가분의 것입니다. 지구상 단 하나의 국가가 평화롭지 못하면 모든 국가가 평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유엔평화대학교가 우뚝 선 이곳은 DMZ 내의 조그만 평화의 섬입니다. 이 섬이 DMZ 전역으로 커지고 이어져 육지가 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도록 여기서 꿈을 꾸시다. 오늘은 DMZ유엔평화대학교 만이 평화이나, 내일은 DMZ 전역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역이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바라보며 힘을 얻읍시다.

한반도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날, 비로소 이 한반도가 평화롭고 희망에 찬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DMZ를 넘어, 지구상 모든 곳에서의 평화를 꿈꾸십시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DMZ의 철조망을 넘어서 전 인류의 평화를 생각하십시오. 마침내 그날이 오면 오늘 우리가 DMZ유엔평화대학교의 개교를 맞아 DMZ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가장 크게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건 DMZ의 시민입니다. 모두 함께 외칩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DMZ의 시민이다!”

30년 독일통일의 순례 : 동서독 접경 1,393km 그루네스 반트를 종주하다



“열려라 우리나라”발족 2021.04.26



‘열려라 우리나라’
함께 하십시오.
(열려라 우리나라 추진위원회)
통일 의식 확산과 통일 의지 고취를 위해, 남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지지할 수 있는 통일운동 ‘열려라 우리나라’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셔서 민족과 역사 앞에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6일



※ 안내/첨가신청 :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사무총장 유민덕 010-6556-3028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5-236875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열려라 우리나라)
※ 제작이나 물질로 기부하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통일영원비 및 영원판에 새깁니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이자 분단날에
통일을 염원하며 함께 만납시다!

“열려라 우리나라”제막
2021.08.15

2021년 행진 자유평화통일
통일영원비 열려라 우리나라 제막
Einweihungsfeier “Open Up, Korea”

[손기웅의 통일문]

朝鮮日報

최보식의 언론

2021년 06월 03일 (목)

뉴스룸 오피니언 프리미엄 코로나 백신

최보식의 언론 >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의 형제들과 식탁에 둘러 앉아...”

빌리 브란트 수상의 보좌관도 동독 간첩
내가 여전히 ‘나드이 네리’의 귀려에

노무현, “손 지사님, 떼를 그렇게 쓰시네! 이제 마조춰시나 빌?”

이광요의 박정희 정부 품평 “한국은 다카스 카자끼이 가거나 머쳤어...”

마틴 루터 킹과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준 영감(靈感)

“I have a dream”, “Yes, We Can”에 통

주간조선 >

기고 정치·사회·경제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의 형제들과 식탁에 둘러 앉아... 손기웅의 통일문 손기웅 객원논설위원 06.02 08:31

북한과 연결선을 가진 어둠의 세력이 권력 최경상에 암씬가... 손기웅의 통일문 손기웅 객원논설위원 05.26 09:32

북한과 연결선을 가진 어둠의 세력이 권력 최경상에 암씬가... 손기웅의 통일문 손기웅 객원논설위원 05.26 08:43

문 정권은 새무자마냥 北 눈치 살피며 전단 살포자를 처벌해 손기웅의 통일문 손기웅 05.19 06:49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끌어주겠다는... 손기웅의 통일문 손기웅 객원논설위원 05.12 08:28

임기 후반 김대중이 부시에게 ‘햇볕정책’ 설득.. 실패 사례의... 손기웅의 통일문 손기웅 객원논설위원 05.05 08:12

트럼프를 치켜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와 “변죽만 올렸을뿐”... 손기웅의 통일문 손기웅 객원논설위원 04.29 08:35

15만 평양 시민 앞 문 대통령의 격정 연설엔 본인만 감동했... 손기웅의 통일문 손기웅 객원논설위원 04.22 08:35

‘인권대통령’은 북한 주민 인권에 입 달고, 그 눈과 귀까지 아... 손기웅의 통일문 손기웅 객원논설위원 04.15 08:24

문 대통령, 노무현 참모 사찰 미국에 대해 무얼 배웠나 손기웅의 통일문 손기웅 객원논설위원 04.08 09:31

아름다운 항구도시 독일 뮌헨의 작은 마을에 분단선이 그어... 손기웅의 통일문 손기웅 객원논설위원 03.31 08:38

매일경제

[손기웅의 통일순례]
베를린에서 백두산으로

성지(聖地)가 된 하이델베르크

[베를린에서 백두산으로-1] 사진 한 장이었다. 나와 가족의 역사를 만든 곳이고, 나의 통일 역정(歷程)의 출발선이 된 곳이다. 아홉 살이던가 어느 날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한 권 펼치는 순간 무언가 떨어졌다. 집어 든 빛바랜 흑백사진에는 평온히 흐르는 강, 절대 무너지지 않을 듯 버티고선 돌다리, 부서진 연붉은 고성(古城)이 그 너머에 담겨 있었다. 귀퉁이에는 '네카어 강변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a m Neckar)라 쓰여 있었다.

정치경제학에서 정치생태학으로

눈이 확 뜨였다. 세계사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국가(國家) 그리고 국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군(軍)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배하는 자의 비이성은 어떻게 생성되며 국가는 왜 전쟁을 일으켜야만 하는가, 지배당하는 자는 왜 우둔함에 빠진 일상을 살아가는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인류는 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누가 그것을 주동하고 있는가 등이 시공간, 체제와 이념을 넘나들며 분석됐다. 그 바탕에는 평화에 대한염원이 놓여 있었고, 나의 문제의식이 더 깊고 넓은 차원에서 해부되고 논증돼 있었다.

**통일,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2015)
통일, 온 길 갈 길(2020)**

統
통일,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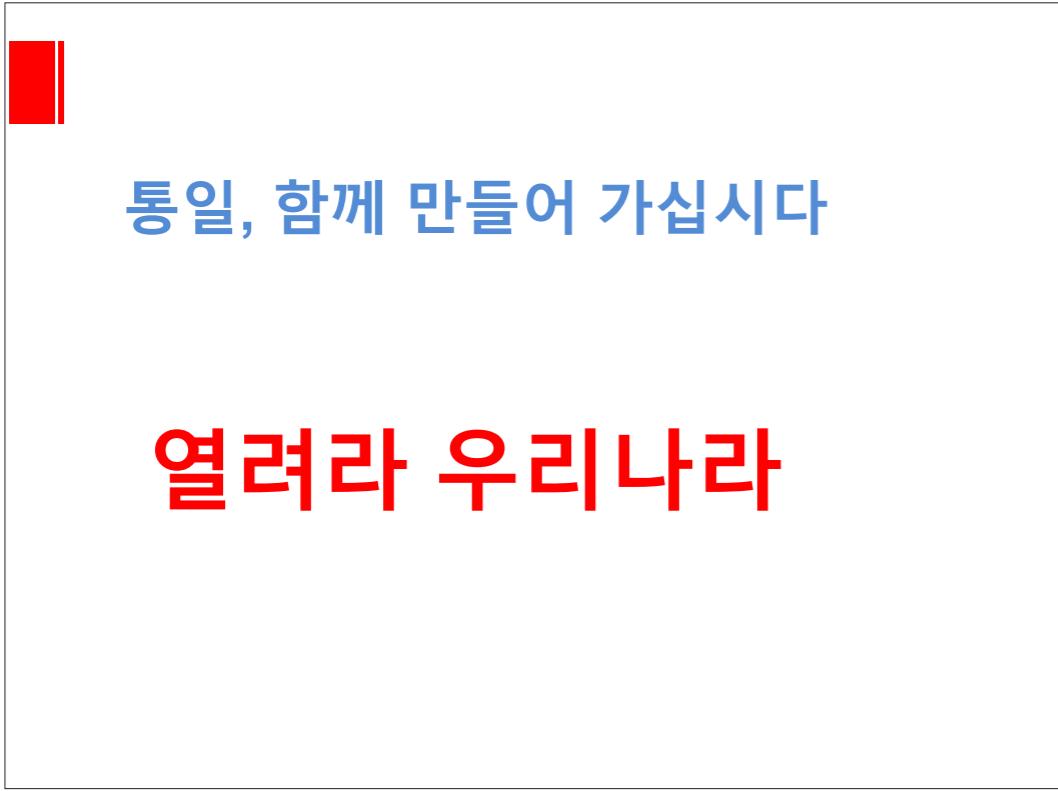
통일, 온 길 갈 길

독일통일 30주년 기념 손기웅의 통일 칼럼
손기웅 저

통일 대
한민국
화두의
정부인
여러나
정부의
대통령
국회의
국민의
국민보기

2015.07.27

2020.07.27



통일,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열려라 우리나라



